

신안 천일염 어가 “올 소금농사 망쳤다”

태풍 ‘하이선’에 만조시간 겹쳐
천일염전·창고까지 완전 침수
어가 “염분농도 떨어져 생산 포기”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의 천일염전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모두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신안지역 천일염 농사가 망쳤다.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전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특히 고농도 바닷물을 보관하는 ‘함수’ 창고가 물에 잠기면서 9월 천일염 생산은 불가능하게 됐다. 김장철을 앞두고 천일염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김장불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의 내습으로 증도와 입자도, 압해도 등 9개 천일염전 274ha와 소금창고 2곳은 모두 부수되거나 반파됐다.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린 데다 만조시간이 겹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염전 곳곳이 물에 잠겼다.

소금을 보관하는 소금창고 지붕만이 보일 정도로 침수됐고 일부 지붕은 날아가 버렸다.

입자도 천일염 생산 어민들은 “올해 유독 긴장마 등 기상 불량으로 작년의 3분의 1밖에 소금 생산을 못 했는데 태풍으로 소금창고까지 물에 잠기는 큰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특히 소금이 만들어지기 전 고농도 바닷물인 ‘함수’를 보관하는 창고가 침수돼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

다. 함수가 빗물과 섞이면서 평균 염분 농도가 22도 이상 돼야 하지만 2도까지 떨어졌다고 어민들은 걱정했다.

함수의 염분 농도를 다시 높이려면 20일 이상 햇빛에 다시 증발시켜야 해 사실상 9월 생산은 어려

운 상태다.

천일염 주산지는 신안이다. 신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염전이 자리하고 있는 등 800여 생산업체가 2519ha에서 연간 21만여t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약 80%가 신안산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기자 노트

코로나 방역수칙 나몰라라...목포시 방관행정



박종배 제2사회부 부장

지난 8일 오후 8시, 출항을 알리는 벨고동이 목포 삼학도 유람선 선착장에 길게 울려 퍼졌다.

때맞춰 출항하는 유람선 ‘삼학도 크루즈호’의 2층 갑판에서는 전남관악(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됐다.

유람선 선상 오케스트라의 감성 짙은 선율과 어울린 목포야경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마친 김중식 목포시장이 크루즈에 승선했다. 김 시장 주변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휴대전화에는 ‘거리두기 2단계 실천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외출·모임은 연기나 취소 ▲마스크 반드시 착용 ▲2m 거리두기 ▲밀집·밀폐·밀접장소 가지 않기를 지켜주세요’라는 중대본 안전 안내문자가 들어왔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두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감없이 유행해 방역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때마침 크루즈 선상 행사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도 금지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방관한 목포시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의 안전불감증은 한심함을 넘어 개탄스럽다.

유람선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유람선 승선인원은 230여명이다. 승선 인원 중 상당수는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전날 오전 발송한 목포시가 관리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내부 공지에 증명한다. “9월8일 밤 8시 크루즈행사에 시장님 이하 관계자를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석자 21명 해설사들은 파란색 유니폼·모자·명찰 필히 착용하고 7시30분까지 크루즈 선착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크루즈에서는 목포시가 주민센터에 할당된 인원을 통장이 인솔하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크루즈 내에서는 더욱 가관이였다. 사실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유람선에는 200명이 넘는 인파가 다닥다닥 모여 관악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춤사위를 폈다. 갑판 난간에서는 평화광장의 야경을 담고자 수십 명이 몰려 사진 촬영에 몰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른도시의 일 켠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선사측이고,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방관행정을 펴는 목포시 수장의 자세가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다중이용시설 폐쇄 등 정부의 고강도 코로나19 대응에도 감염원이 다양해지고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목포시민들의 눈에는 이같은 상술에 방역지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선사의 무모함과 방관자가 된 김 시장, 목포시 방관행정이 어떻게 비쳤을까. /pjb@kwangju.co.kr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전담팀 운영...9~11월 석 달간 ‘상품권깡’ 집중단속
적발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세무조사 요청도

영광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불법유통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광군 투자경제과에 신설된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 점검팀’이 전담한다.

단속 기간에는 개인과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를 비롯해 상품권 결제 거부,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팀은 가맹점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준수 사항도 함께 홍보해 건전한 유통을 유도

할 계획이다.

불법유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즉각 취소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창에스엔티, 영광에 마스크 10만장 기부

㈜영창에스엔티가 지난 7월 영광군에 텐탈마스크 5만장을 기부한 데 이어 7일 마스크 5만장을 기부했다. (사진)

김영백 영창에스엔티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마스크를 구 매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해달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가족센터 신축...다문화가족 등 맞춤형서비스

국비 15억 확보...옛 5일시장 부지에 2022년 완공

무안군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일환인 여성가족부 주관 공모사업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센터는 임대시설로서 공간이 협소해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가 절실했다.

이에 무안군은 무안읍 옛 5일시장장터 부지에 연면적 1300㎡ 규모로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

원, 군비 15억원)을 들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가족센터가 들어서는 무안읍 옛 5일시장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만6500㎡ 규모의 무안읍 품돌이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이 곳에는 가족센터 입주는 물론 공공도서관, 작은영화관, 청소년수련관, 청년문화센터인 메이커스페이스, 문화원 등 다양한 복지·문화·돌봄 통합 커뮤니티센터로서 무안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배치’

진도군, ‘안심여행’ 환경 조성

진도군은 지난 8일부터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심여행 환경을 조성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여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진도 안전여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한

다. 방역·관리요원은 관광객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2m 이상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제한 등 생활 방역수칙을 지도한다.

출입구와 주요 동선 등 방역·관광지 특성에 맞는 소독, 환기 실시 등의 역할도 담당한다.

진도타워, 신비의바닷길 체험관, 아리랑백천, 진도개떼파코, 소전미술관, 운림산방, 해양생태관 등 10곳에 방역·관리요원 24명이 배치된다. 기간은 12월까지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